

광주를 바라보는 같으면서도 다른 관점

앎문화전당, 21일부터 '라이트 언더 무브' 전
광주 정정주·인도네시아 랑가 뿌르바야 작가
'빛·역사·공간' 키워드로 미디어아트 전시

근현대사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장르나 하나의 매체에 담아내기에는 역부족한 면들이 없지 않다. 거기에는 특정한 역사와 공간, 개인사와 역사적 사건이 연결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도 다른 관점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 출신 작가로는 정정주와 아시아 작가로는 인도네시아 작가 랑가 뿌르바야를 선정했다. 두 작가는 공통적으로 '빛, 공간, 역사'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한 미디어아트, 설치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정정주 작 '옛 전남도청'



랑가 뿌르바야 작 '침묵의 자취를 찾아서'

광주 5·18은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자 이슈였다. '빛의 도시'라는 광주의 상징성에 피의 역사의 학살이 결부됨으로써, 광주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었다. 빛과 역사 그리고 특정 공간이 지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인들과 연대와 진실의 의미를 환기하기 때문이다.

2019국제전자예술시포지엄(2019ISE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와 맞물려 광주를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광주의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특히 기획단계에서 광주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빛, 역사,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21일부터 9월 1일까지 문화화조한 복합6관에서 '라이트 언더 무브'(LIGHT ON THE MOVE)를 개최한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문화,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것은 물론 광주 지역 작가와 아시아 작가를 매칭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같으면서

정정주 작가는 흥익대 조소과를 졸업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유학하면서 빛과 관련된 경험을 시작으로 빛과 공간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빛에 주목해, 카메라를 건축 모형물 안에 배치해 카메라 렌즈가 바라보는 정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식은 작가가 과거 유년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마비된 도시를 마주한 경험을 근간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작가 랑가 뿌르바야는 2018 ACC창작공간네트워크국제전시에서 루앙 메스 56 창작공간 대표로 참가했다. 그는 1965년 인도네시아 대학살 때 실종된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타르조 조사하기', '기만의 풍경' 등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 주제인 '라이트 언더 무브'가 움직이는 빛을 의미하듯, 이처럼 두 작가는 빛을 비추거나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프로젝션 방식을 활용해 역사적 공간과 기억을 연결하고 상기시킨다.

정정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2018년 '응시의 도시-광주' 시리즈 일환으로 제작한 광주 5·18의 상징적 건축물인 전일빌딩을 비롯해 옛 국군광주병원, 옛 전남도청을 다룬 신작을 선보인다. 작가는 근현대사 비극 속에서 광주의 마비상황과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심리적 풍경을 건축 모형과 카메라 시선, 빛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준다.

랑가 뿌르바야의 전시 작품 중에는 '실종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눈길을 끈다. 지난해 '저항, 기억, 관계: 2018 ACC창작공간네트워크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전에서 작가는 SNS를 통해 실종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였다. ACC 홈페이지 참조.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일빌딩'

'기억을 기다리다' 초대연 사진전, 7월1일까지 롯데갤러리

초대연 작가 초대 기획전이 오는 7월1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열린다.

'기억을 기다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작의 배경은 5·18민주광장으로, 작가가 10년간 광주의 구도심을 다니며 관찰한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광주의 시간'이라는 큰 테마의 첫 시리즈 작업이기도 하다.

조 작가의 앵글에 담긴 광장의 풍경은 늘, 누구나 보던 '정형화되고 사실적인' 모습보다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두드러지면서 색다른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그가 잡아낸 광장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거리극 등 축제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3·1운동기념식이나 추모행사도 열린다. 광장 위의 뿌연 스모그, 석가탄신일 전야 붉은 대형 연꽃으로 치장한 분수대가 눈에 띄며 5월

의 상징인 전일빌딩의 근경엔 무당집의 깃발이 나무간다.

조 작가의 작품에서 현장은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각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읽히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이끈다.

중앙대 사진학과,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수학한 조 작가는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기자를 거쳤다.

광주에 정착한 90년대 중반부터 살터와 사람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 새만금 개발사업을 소재로 한 '흐르는 땅', 순천만을 표현한 '습지' 연작을 포함해 남도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221-1807-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BON VOYAGE' 최순임 개인전, 7월9일까지 아트폴리곤

최순임 작가 개인전이 20일부터 7월9일까지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암 수술 후 무당산 자락 요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해온 최 작가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드로잉, 조각, 사진 작업을 해왔다.

전시 제목 'BON VOYAGE'는 불어로 '좋은 여행이 되길 바라'는 뜻이다. 여행은 최작가의 오랜 화두였다. 2012년부터 개인전 열 때마다 삶을 여행에 비유하는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삶에 대한 고민과 신체적 고통은 '좋은 여행'에 대한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졌고, 스스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 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스스로 '요양객'으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녀는 '삶이라는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은 혼란스런 자아와 곳곳에 도사리는 온갖 격정 속에서 아마도 즐거움과 평화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문의 062-682-097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BON VOYAGE'

'음악, 너는 나의 친구!'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22일 문예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음악극 공연 모습.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29번째 정기 연주회 '음악, 너는 나의 친구'를 연다. 22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44명의 단원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합창에 대사, 춤 등 연극적 요소를 섞은 음악극 무대로 꾸민다.

극은 숲 속으로 음악 캠프를 떠난 합창단원들이 새소리, 나뭇잎 소리 등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음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야기 나누고, 음악이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

라는 걸 깨닫는 이야기로 진행된다.

이날 무대에서 선보일 곡은 백하슬기 '밝게 빛나는 노래', 슬리스 '노래같이 좋은 것은 없네', 마상원의 '마침이 Z', 황소리가 편곡한 'I Believe', 알트하우스의 '음악, 너는 나의 친구!' 등 총 11곡이다.

윤영문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한국연극협회 원광연 광주시회장이 대본을 쓰고, 연출한다. 문선은씨의 신디사이저와 함께 김완조 소프라노도 참여한다. 전석 1만원(학생50%). 문의 062-613-8246. /유연재 기자 yjyou@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 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특허공법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재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